

# 市 “러시아워뎀 3량·2분 간격 운행...하루 최대 43만명 수송”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찬반 주장 팍트체크

16년간의 찬반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公論) 과정에서 일부 검증이 안 된 자극적인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론이나 앞으로의 자료 제출에 있어서 각종 주장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국가 교통통계 등 예측 무시

### 검증 안된 억지 주장 난무

### 11일부터 2500명 여론조사

대 측에서 ‘달라 2량 2조원’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반대측은 최근 방송 토론에서도 2량의 승차 정원이 153명이고, 34차례 편성돼 18시간30분 운행한다고 해도 운송인원은 9만6237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버스 2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송 능력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대측의 논리는 한 번 승차한 승객이 한 번도 내리지 않고 종착역까지 가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2호선 44개 역에서 타고 내리는 승객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봉현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교통계획 및 정책 전공)는 “반대 측의 논리는 억지에 가까운 것으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운행시간 동안 역을 통과하면서 승하차하는 모든 인원을 계산에 넣어야 하며, 열차에 최대한 태울 수 있는 승객 수를 수송능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광주시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평소 2량으로 운영하다가 출퇴근 시간 등 수송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1량을 늘려 총 3량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또 배차 간격도 평소 4분에서 2분으로 단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하루 최대 수송능력은 43

만명, 수송수요(실제로 하루 2호선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는 23만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부처로부터 기본계획과 예비타당성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공인한 교통통계(KTDB, 인구 153만 기준) 및 KDI의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1일 23만명이 예측됐다”며 “시간당 수송량 2만3000명에 1일 운행시간 18.5시간을 곱하면 43만명의 수송능력이 산정된다”고 반박했다. 이를 시내버스 수송효과로 환산하면 1024대(일평균 420명 탑승 기준)이며, 배차간격 등을 조정하면 수송능력은 더 향상된다는 것이다.

인천 2호선 역시 2량으로, 배차 간격을 3분 20초에서 3분으로 조정하며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자체는 지하철을 포기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시는 해당 도시의 사정에 따라 대중교통 계획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 대전 등은 지하철 대신 노면전차(트램)를 도입하려했으나 수년째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최완석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도시교통 전공)는 “지난 16년간 지상고가경전철, 노면전차 등을 놓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수차례 장·단점 논쟁을 거쳐 현재의 저상도 지하철로 결정된 것”이라며 “일부 반대측의 논리는 왜곡된 것도 포함돼 있으며,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전문적인 영역을 주장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준영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BRT(급행간선버스)나 노면전차를 다른 도시들도 도입하려했으나 현재의 도시교통 여건과 시민들의 승용차 이용 습관, 국비 확보 등을 고려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어 난



방탄소년단 만난 문 대통령 내외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4일 오후(현지시간) 파리 트레지아아트 극장에서 열린 ‘한·불 우정의 콘서트’를 관람한 뒤 공연을 펼친 방탄소년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우선 지하철로 대중교통의 핵심근간시설을 만들어놓고, 다음 수단으로 BRT, 노면전차를 통해 도시를 대중교통 중심의 공공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자 chadol@kwangju.co.kr

## “북 비핵화 합의 어길 경우 국제사회 보복 감당할 능력 없다”

### 문대통령 르피가로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실제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국빈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 “나는 세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고,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뉴욕 방문 당시 미국교협회 등이 주최한 연설 행사에서 “북한의 여러 비핵화 조치에 국제사회가 속임수 등이라고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김 위원장의 언급을 소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날 숙소에서 파리 알마 광장까지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소를 타고 파리 알마 광장까지 700m가량을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알마 광장에 내려 이곳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에서 운전자들이 수소를 충전하는 모습도 지켜봤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수소를 충전하는 수소차 택시 기사에게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를 직접 묻고 “파리 시내에서 수소 차량이 더 많이 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그만큼 수소 전기차 개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 北예술단 ‘가을이 왔다’ 광주 공연 성사 가능성 커졌다

###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지방 공연 이른 시일 추진 합의

### 이달말 남북 체육회담 세계수영대회 북 선수단 참가도 논의

15일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에 ‘스포츠 공동 진출과 북측 예술단 공연’이 포함됨에 따라 ‘가을이 왔다’ 광주 공연과 내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공개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과 관련해 실무적 문제들을 이른 시일 안에 협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열기로 한 공연이 광주에서도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광주 개최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받았다. 도 장관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조해달라는 최 의원의 요청에 “올해 가을 북한 공연단 방문 때 일부 공연을 광주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서울공연은 지난 4월 평양공연에 화답할 ‘가을이 왔다’로 준비 중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우리 예술단의 평양 단독공연 ‘봄이 온다’를 관람한 후 도 장관에게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결실을 바탕으로 올 가을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남북은 이번 공동보도문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 공동 진출과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10월 말께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체육회담에서는 내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참가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실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광주시는 이날 합의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북한선수단이 출전하거나 남북단일팀이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HNT 하나투어**

**하나팩**

## 여행은 편안하게, 무안출발 해외여행

☞ 광주일보 고객 예약자 대상 혜택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 증정(대표자1명) ※출발후 제공/예약시광주일보 구독자임을 알려주세요

중국	대만/동남아	일본
<div style="text-align: center;"> <p><b>상해</b></p> <p>299,000원~</p> <p>상해/항주/주가가 4일,5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p> <p>#상해야경#동양의 베니스 #주가가 뱃놀이</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b>상해/장가계</b></p> <p>1,290,000원~</p> <p>상해/장가계/원가계 4일,5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p> <p>#천하제일명산 #일식미조여행</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b>대만</b></p> <p>614,200원~</p> <p>대만/지우펀/야류 3일,4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월,목,일요일 3박 4일 수요일 2박 3일</p> <p>#먹거리,불거리가득</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b>방콕</b></p> <p>664,900원~</p> <p>방콕/파타야 5일,6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수,목요일 3박 5일 토,일요일 4박 6일</p> <p>#코끼리트레킹 #발마시지 #다이내믹 여행지</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b>다낭</b></p> <p>899,000원~</p> <p>다낭/호이안/후에 4일,5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토요일 3박 4일 화요일 4박 5일</p> <p>#4성급호텔 #투어 #후에전통가</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b>기타큐슈</b></p> <p>490,000원~</p> <p>기타큐슈/유후인/벳부 4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3,000엔</p> <p>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매일출발 2박4일</p> <p>#지옥온천 #캐널시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b>오사카</b></p> <p>1,101,200원~</p> <p>오사카/교토/나라 4일</p> <p>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없음</p> <p>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월,목,일요일 3박 4일</p> <p>#사슴공원 #알찬관광일정 #다양한 특식</p> </div>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